



케이프형 등 부정기선시황 상승국면 17만톤급 용선료 3월대비 18% 상승 조강생산 증가추세 세계적으로 확산

최근들어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송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등 부정기선시황이 세계적인 조강생산 확대와 선박공급 부족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상승기조는 세계적으로 조강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신조선의 공급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은 6월 중반 이후, 중국의 투자 억제책 등으로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운임이 일시적으로 조정 받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브라질-극동간의 17만 중량톤급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용선료가 지난 3월대비 18% 가량 상승한 1일당 9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철강협회(IISI)가 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의 세계 61개국·지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3.7% 증가한 8,390만톤에 달하고, 중국은 21.2% 증가한 2,480만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료에 사용하는 철광석을 브라질, 호주 등 해외로부터 수입 하기 위해 대형선을 중심

으로 선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2004년 철광석 수입량은 약 2억1,00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년 이후의 신조선의 공급량은 철강 원료선의 현존 선박(8만중량톤 이상) 669척의 약 30%에 달하는 2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철광석의 해상물동량이 선박공급을 웃도는 것 외에도 주력항에서의 체선, 노후선과의 교체 등으로 당분간 선박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관리전문회사 V Ships사 760척 관리 현재 2만 350명의 선원 pool 관리

모나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V Ships사는 지난달로 760척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사는 232개사라고 발표했다. 전체 고객의 67%는 1~3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선주사들이다. V Ships의 경쟁사로 Schulte Group, Wilh. Wilhelmsen의 Barber, Waller, Columbia, Anglo-Eastern 등이 있으며 경쟁사와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다. 최근 V Ships는 Crueship과 Leisure craft분야에도 진출하여 작년에 40척, 올해에는 118척을 확보했다.

그러나, 총760척중 360척만이 full management하에 있고 나머지는 선원관리만 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20,350명의 선원 pool을 관리하고 있으며, 44개 해외사무소, 27개의 채용사무소 및 14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